

시론



박 대 우

지역발전정책연구원장

미국의 군 수뇌부가 우리나라를 찾았다.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등 면면만으로도 무게감이 느껴진다. 이들의 방문목적은 한·미 양국이 1년 단위로 개최하는 한미군사위원회 회의와 한미안보협의회의에 참석해 주한미군, 북한 문제 등을 비롯한 한반도의 군사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이다. 이 회의들은 매년 우리나라와 미국을 상호 방문해서 열리는 만큼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상시적인 논의가 가능한 구조이다. 그렇다보니 특별하고 시급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한 각국의 이목을 집중시키지 않고 회담이 개최됐다. 하지만 이번 만큼은 처음부터 사뭇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 국방과 외교 관계자는 물론이고 경제 관련 기관에 이르기까지 미국 측의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목적

과 의미를 면밀하게 분석하느라 여념이 없다. 이번 만남에서 주한미군의 주둔과 방위비 분담 등에 있어 서로의 입장이 다르고 주장하는 차이가 워낙 크기도 하지만 가장 민감한 부분은 따로 있다. 바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을 둘러싼 회의 결과에 따라 한반도와 주변의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소미아는 단순히 한·일 간의 군사정보에 관한 의제를 훌쩍 뛰어넘어 한·미·일, 그리고 한반도 주변의 국방·외교·경제 분야에 이르기까지 그 파급력이 엄청난 사안이다.

지소미아는 한·일 두 나라가 군사정보의 전달·보관·파기·복제·공개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21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2016년 11월 23일 체결된 이 협정은 유효 기간이 1년으로, 기한 만료 90일 전까지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이 연장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2019년 11월 23일부터 자동으로 파기될 예정이다. 내용만으로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아 보이지만 실상은

대한민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버금가는 중요한 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소미아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하는 동북아시아 전반의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를 방문하기에 앞서 일본을 찾은 미국의 합참의장은 아베 총리를 만난 후 “한국에서도 지소미아가 비중 있게 다뤄질 것이며, 시한을 넘기지 않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만큼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압박은 예견됐었지만 우리나라를 방문한 국방과 외교 라인에 물론이고 미국 현지의 하원 군사위원장까지도 한·미·일간 협력은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엄청나게 중요하며 지소미아의 갱신을 공개적으로 요구할 정도이니 말 그대로 파상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 8월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의 종료를 선언한 직후에 더 강한 실망과 우려라는 표현으로 공개적 압박에 나선 적이 있다. 이 처럼 한·일간의 갈등에 대해 미국이 즉각적이고 직설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드문 경우이다. 결론적으로 는 문재인 정부의 성급한 결정에 대

해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물론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국민들의 감정에 반응하기 위한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지소미아의 종료를 선언함으로써 협상의 여지가 없는 막대한 길을 택한 것은 대단히 아쉽고 실망스러운 결정이었다. 국제관계의 연계성을 파악하는 고민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지소미아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거나 또는 ‘엄중하게 따져보겠다’ 정도의 완곡한 대응으로 나섰더라면 일왕의 즉위식을 축하하기 위해 총리가 참석하는 것에 대한 시시비비도 없었을 것이다. 또한 문화상 국회의장이 일본의 한 대학에서 강제징용과 위안부 배상의 해법을 제시하고 논란에 직면하는 상황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예정에 없던 환담으로 어색한 국면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쫄지 말고, 족장을 들고 싸우자’던 각기를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숨겨야 하는지 참으로 곤혹스러운 형국을 맞닥뜨리지 않았을 것이다.

여행수첩

상을 수상한 쿤터 그라스의 고향이며 그의 대표작 양철북의 배경이 된 도시이기도 하다. 발트해의 물이 도시로 흐르며 해적선을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을 사로잡고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폴란드인들의 열정은 폴란드 도시마다 있는 국제공항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

요한 바오로2세 크라쿠프 발리체국공항, 브로츠와프 코페르니쿠스 공항, 폴란드의 저명한 작곡가이자 바이올리니스트인 아비카 헨리크 비에니아프스키 포즈난공항, 폴란드 민주화의 도화선이 됐던 자유노조 운동을 이끈 레흐 바웬사 전 대통령의 이름이 붙여진 레흐 바웬사 그단스크공항 등 폴란드인의 사랑과 존경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여행객에게는 그 인물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폴란드의 역사와 문화예술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다.

제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으로 독일과 소련에 분할 점령되는 아픔과 2차대전 종전 후 독점이 되 찾았지만 사회주의 위성국으로 살면서 사상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오랜 세월 강대국에 둘러쌓여 수난을 겪었던 나라, 전쟁의 폐허 속에 서도 다시 일어섰던 폴란드, 그들의 역사는 우리와 닮아있었다.

수난의 역사에서 민족의 구심점이 된 것이 문학이었을 것이다. 슬라브어족에 속한 폴란드어는 고통

스럽기까지 하다. 인구 3천800만명의 나라에서 노벨문학상 수상자 5명, 폴란드 문학의 저력을 볼 수 있었다.

폴란드 현대사와 현대적 삶을 쓴 소설가겸 시인 (올가 토카르츠크), 퀴바디스 유명한 소설가 (헨리크 시엔키에비치), 나치즘과 공산주의라는 전체주의에 저항하다 망명한 시인 (체스와프 미워시), 농민소설가 (브와디스와프 레이몬트), 공산국가가 된 폴란드에서 모국어의 우아함과 섬세함을 지켜낸 시인 (비스와프 심보르스카)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수난의 역사에서 지켜낸 민족으로 전 세계인들을 사로잡고 있었다. (미츠키에비치) 시인의 동상이 폴란드 전역에 10개가 넘는다고 하니 폴란드인의 역사와 문화에 자긍심은 대단했다.

폴란드의 마르틴 감독은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을 원작으로 한 (더 보이 이스 커밍) 연극을 통해 유럽 전역에 광주의 역사를 알리며 최근 광주를 찾았었다. 내년 40주년을 맞아 광주에서 연극을 올린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다.

이처럼 폴란드는 도시의 건축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 인물들 옛것을 소중히 간직하며 현대의 삶속에 녹아내려 흐르고 있었다.

폴란드 출신 영화감독 로만 폴란스키의 작품 ‘피아니스트’는 쇼팽의 녹턴으로 시작된다.

스산해지는 겨울밤 쇼팽의 ‘녹턴’을 들으며 한 해를 마무리해 간다.

문화난장



김 규 랑

문화기획자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어느 날 문득 낮선 곳으로의 여행은 늘 설렌다. 하늘위에 떠 있는 즐거움과 낮선 도시에서 만나게 될 그 무엇들로나의 발걸음이 다다른 곳은 폴란드 바르샤바의 프레드릭 쇼팽 국제공항이다. 특별한 이름에서 느낄 수 있듯이 폴란드는 위대한 음악가의 나라였다.

음악가의 나라답게 바르샤바의 거리에서 만나는 벤치에서는 쇼팽의 음악이 흘러나오고 아름다운 쇼팽공원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연주회가 펼쳐진다. 도심에 위치한 쇼팽 박물관은 흥미로운 사료도 적지 않게 전시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전시물이 디지털화돼 있어 하루 종일 쇼팽의 삶과 예술의 세계를 만날 수 있다. 디지털화된 악보를 넘겨가며 쇼팽의 모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이기도 한 이곳은 지하에는 동굴 같은 작은 공연장이 있어 음악회도 함께 열린다. 쇼팽 콩쿠르도 5년마다 한 번 이곳 바르샤바에서 열린다.

유럽의 여러 나라를 연주여행을 다니던 중 전쟁으로 고국 폴란드로 돌아오지 못했던 그는 늘 가족과

고국을 그리워하며 생을 마감했는데 그의 유언대로 쇼팽의 심장이 바르샤바의 성 십자가 성당에 묻혀 있었다. 바르샤바에서 차로 1시간쯤 달려 만났던 곳, 쇼팽의 생가. 쇼팽의 음악이 흐르고 넓은 정원을 거닐어 생가에 들어섰을 때 창문 밖으로 나무들이 물들어가고 있었다. 음악적 재능을 타고난 어머니와 누이들의 피아노 소리를 들으며 자랐을 쇼팽. 그의 생가에서는 젊은 연주자의 연주로 여행의 행복감은 더해만 갔다.

교황 요한바오로2세, 코페르니쿠스, 퀴리부인 등 폴란드를 대표하는 인물들의 생가는 단지 집으로 존재하는 게 아닌 그 인물들의 역사와 삶, 업적을 너무나 흥미진진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 폴란드를 찾는 여행객들에게 너무나 사랑받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폴란드의 심장 비스와 강이 흐르는 바르샤바를 시작으로 폴란드의 옛 수도이자 문화예술의 도시 크라쿠프, 난쟁이 도시로 유명한 브로츠와프, 10세기 폴란드 최초의 주교구가 설치된 포즈난, 중세도시를 그대로 간직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도시 토룬, 발트해 연안의 북부 헬, 그드니아, 유럽의 숨은 보석같은 그단스크까지 폴란드의 도시를 거닐고 폴란드 사람과 문화 예술을 만날 수록 빠져들었던 그 곳, 폴스카.

폴란드의 수많은 도시 중 발트해 연안의 북부 도시 그단스크는 유럽의 숨은 보석 같은 도시로 노벨문학

독자 투고

‘광주 불명예’ 보험사기 근절해야

광주지역이 인구 대비 보험사기 검거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불명예를 안았다. 국회 정부위원회장 병완 의원(대한정치연대, 광주 동남갑)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경찰이 검거한 보험사기는 총 1만1천628건, 적발금액은 1조3천368억원으로 집계됐다.

사기 범죄는 서민경제를 악화시

키고 사회 구성원간 신뢰를 파괴해 결국 국민들의 삶을 파헤쳐시킨다. 피싱사기·생활사기·금융사기 등 3불(不) 사기 범죄 중 금융사기에 해당하는 보험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에서는 총력을 다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보험에 가입된 상황에서 법질서를 훼손하고 보험사기로 인해 국민들의 보험료 추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금을 노린 고의사고, 허위 입원 및 살인, 상해 등 보험범죄에 대한 엄정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자동차 관련 불법행위다. 가해자·피해자 공모로 교통사고 유발 또는 경미 범규위반 차량 상대로 고의사고 야기 후 보험금 편취,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과장된 통증 호소 및 입원으로 보험금 편취, 정비업체에서 중고부품이나 비준제품을 순정품으로 속여 수리비용 과다 청구 행위다.

생명보험 관련 불법행위로는 기왕증 은닉, 대리진단, 의료보험증 도용진단 등 건강상태 허위고지 및 보험사고 일자조작으로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금 편취, 고의적으로 신체피해(살인·상해·자해) 유발 후 보험금 청구 행위, 보험사고 위장 및 사고발

생 후 위법행위(장해등급 상향 또는 치료기간 연장 등)이다. 화재보험 관련 불법행위는 방화 등 고의사고 후 원인불명 발화 또는 실화 등을 가장, 보험금 청구, 실제 피해액을 부풀려 과다한 보험금 청구·편취 행위다.

또한 기타 요양보험, 산재보험 관련 불법행위 등인데 병원의 요양급여 청구 관련 진료기록부 등 허위 기재, 의료보험금 청구·편취, 요양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허위서류 작성, 보험금 청구·편취 등이다. 사기 범죄에 대한 예방·홍보활동이 성과를 얻기 위해서 관계기관, 국민 모두의 절실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윤시현·광주 북부경찰서 두임지구대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社說

도시철도공사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문화지하철을 표방하며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광주도시철도공사에 대한 평가가 그리 좋지 않다. 최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철도공사의 적자 운영과 직원 징계 등에 관한 혁신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임원의 역대 연봉 등 직원 인건비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그간의 지적이 있었던 터였다. 도시철도공사의 새로운 공기업 모델 조성 노력이 더욱 절실해졌다.

광주시의회 정무창(민주·광산2)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철 2호선이 완전 개통되면 적자 규모가 더 늘어날 것이다. 시민의 혈세 투입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시철도공사 당기순손실은 2014년·2015년 367억원, 2016년 370억원, 2017년 355억원, 2018년 406억원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2018년 영업비용은 1천억원에 비해 수익은 270억원이며, 영업손실은 74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시가 지원하는 금액이 지난해 460억원, 올해는 5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하철 1호선 수요가 아직 많지 않은데다

타·시도보다 수송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낮은 운임 체계, 단일 노선 운영, 높은 무임 손실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비 증가도 적자를 심화시켰다.

수익 향상 방안은 제대로 내지 못하는 도시철도공사가 비위 공무원의 제식구 감싸기는 지나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점기(민주·남구2) 의원은 음주운전과 관련한 내부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미만인 경우 공무원은 중징계인 정직부터 감봉까지인데 도시철도공사는 경징계인 감봉부터 견책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밖에도 느슨한 징계 기준을 상세히 지적했다.

도시철도공사는 정부 재난관리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고 고객만족도 조사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내부 운영과 경영 측면에서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향후 공기업으로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혁신 모델을 제시하지 않으면 모랄드 헤저드(도덕적 해이)란 파거운 여론을 피하기 어렵다.

옛 광주경찰청 막사 흉물로 놔둘 건가

광주 남부경찰서 인근 옛 광주지방경찰청 막사가 오랫동안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건물 벽면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녹이 슬고, 엉켜 있는 전선들이 튀어나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한다. 주변엔 각종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는 등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니 어찌된 일인가. 이 건물을 관리하는 광주경찰청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어 건물 철거까지는 ‘하세월’이다.

그렇잖아도 광주지역에는 짓다 만 건물을 포함한 ‘유령건물’이 다수 있어 시민들의 민원 대상이다. 광주를 찾는 외지인들에게도 좋지 못한 인상을 주는 것은 물론이다. 이번에는 민간 건물도 아닌 경찰 관련 건물이어서 더 불편하게 만든다.

문제의 옛 광주경찰청 막사는 연면적 1천934㎡ 부지에 1986년 1월 건립됐다. 과거 기동 8중대 등의 부지로 활용됐으며, 2009년 기동 8중대가 서구 유촌동으로 이전한 이후 현재까지 경찰기차재 보관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막사는 줄곧 방치되면서 이곳이 치안

을 담당하는 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곳인지의 심스럽게 한다고 한다.

그런데 남부경찰서와 기동대 뒤편에 위치한 이곳은 넓은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정작 시민들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하거나 진입하려 해도 출입 통제를 받고 있다. 경찰 전용 주차 공간으로만 활용되기 때문이다. 남부경찰서 내 주차장과 민원주차장은 매일 같이 주차 대란이 일고 있어도 이곳은 출입이 봉쇄된 상태다. 때문에 민원인들은 방치되고 있는 막사 주변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남부경찰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인들에게 이곳을 주차 공간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흉물로 변한 건물 외벽과 주변 시설을 단장한 이후 개방해야 할 것이다. 행여나 안전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건물 철거를 위한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한다. 그러면서 이 자리를 어떤 용도로 활용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래픽 뉴스

글로벌 기업가치 500위권에 한국기업 8개→2개

세계 시가총액 순위 상위 500위 안에 포함된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거래소가 글로벌 상장기업 시가총액(미국 달러 환산 기준) 순위를 조사한 결과 이달 8일 기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약 2천684억달러(약 313조3천529억원)로 시총 상위 기업 중 20위(상장지수펀드 제외)를 기록했다.

시가총액 517억달러(60조3천784억원)인 SK하이닉스는 267위에 이름을 올렸다.

나머지 우리 기업은 글로벌 시총 상위 기업에 포함되지 못했다.

2010년 말에는 삼성전자(43위), 현대차(258위), 현대모비스(371위), 포스코(219위), LG화학(405위), 현대중공업(300위), 신한금융지주(423위), KB금융(457위) 등 8개사가 세계 시총 500위 내에 들었으나 9년이 지난 지금까지 500위 내에서 자리를 지킨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뿐이었다.

그나마 삼성전자 순위는 10년 새 23계단 올랐고 2010년 말 805위였던 SK하이닉스는 무려 538계단이나 뛰어올랐으나 그 외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은 전부 자리를 내주고 밀려난 셈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산업 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정보기술(IT) 중심으로 변화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경제 구조상 수출 의존도가 높고 내수 기반이 취약하다는 ‘약점’도 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南成淑 논설실장 鄭鎮坦 편집국장 吳星洙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초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지부	650-2030	체육부	650-2065	광고국	650-2072	
	경제부	650-2050	사진부	650-2080	경영지원국	650-2010	
	사회부	650-2040	논설실	650-2006	기획사업국	650-2079	
	문화부	650-2067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刊)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